

# 출판유통 난맥상의 상징 보문당 완전청산된다

올 6월 말까지 채권 청산 예정



보문당 사태는 전근대적인 유통관행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다. 사진은 새롭북이 폐기한 책들이 트럭에 실리는 모습.

탈 말던 서적 도매상 보문당 사태가 4년여를 끌어오다 최근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다. 지난해 9월 20일부터 옛 보문당 성수창고를 빌려 재고도서를 판매해왔던 새롭북(대표 이갑복)이 지난 3월 15일을 끝으로 성수동 매장을 마감한다고 발표했다. 이런 가운데 보문당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됐던 보문당채권단 청산위원회(위원장 홍동수 출판영업인회의 회장)가 최근 6월 말까지 보문당 사태를 해결하겠다고 발표해 국내 출판유통환경의 구조적 문제점을 보여줬던 보문당 문제가 씩씩한 뒷맛을 남기고 매듭지어질 전망이다.

## 15만권 폐기처분해

이갑복 대표가 보문당 재고도서를 인수했던 것은 애초 보문당 직원들의 미지급 급여와 누적된 퇴직금 17억원을 마련해보자는 생각에서였다. 그래서 임금 채권으로 법원에 가압류됐던 재고도서를 경매를 통해 2억4천5백만원에 인수했던 것. 당초 계획은 지난 12월까지 성수동 창고를 정리하고, 재고도서를 모아 중저가 인터넷서점을 차릴 생각이었지만, 창고

비와 유지비 등 부대비용 마련도 쉽지 않아 6개월여를 운영해온 보문당 창고를 정리했다. 이대표는 “투자한 원금마저 보전하지 못했다. 지난 2월까지 대략 25만권 정도가 남았는데, 그 가운데 15만권을 폐기처분하고 10만권은 구로동 창고에 보관중이다. 구로동 창고의 재고도서를 대학가를 방문해 판매하는 등 이벤트를 벌여 정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보문당채권단청산위원회(이하 청산위)는 보문당 문제 해결의 또다른 축을 맡고 있다. 청산위는 지난 4년 동안 난마처럼 얽힌 보문당 사태 해결을 위해 거러 서점을 방문하고 해당 출판사들에게 자사 책을 회수해가라고 독려하는 등 백방으로 노력해왔다. 현재까지 진행된 청산위의 청산작업현황을 살펴보면, 서울과 대전 창고를 직원들의 급여로 경매 처분한 3억5천여만원, 출판사 회수분 150만부 약 70억원, 정상적인 반품절차를 통해 출판사에 돌려준 책이 40만부 약 20억원 등으로 총부채 330억원 가운데 현재 100억원 정도를 회수한 상태다. 그러나 이 작업도 수월치 않아 이에 응하지 않는 409개 서점에 대해 지난 9월부터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그 가운데 승소판결을 받은 250개 서점에 대해서는 추심중이고, 나머지는 아직 소송이 진행중이다.

하지만 여기서 다시 반품받은 책을 정리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홍동수 회장은 “반품받은 책을 정리해 해당 출판사에 7차에 걸쳐 자사 출판물을 회수할 수 있도록 조치했지만, 채권을 양도한 많은 출판사들이 책을 찾아가지 않았다. 당초 보문당 문제에 관련된 출판사는 1천4백여 곳에 이르는데, 자연소멸되거나

정리해간 출판사 1천여곳을 제하면 현재 남아 있는 출판사들은 대부분 이름만 대도 알 만한 곳들이다”고 말한다.

## 위탁판매방식 벗어나 현금결제시스템 갖춰야

그동안 청산위는 반품받은 책을 출판사에 인계하면서 권당 3백원씩 받아 운영자금을 마련해왔다. 하지만 창고유지비로 월평균 150만원씩 현재까지 3억6천만원, 소송비용으로 1억5천만원 가량이 지출됐고, 더욱이 신규차입금 1억3천만원도 갚지 못한 실정이다. 막상 자사 책을 회수해가야 할 출판사들의 반응이 미온적인 것도 문제다. 반품비용도 비용이지만, 반품도서들이 대부분 출고한 지 3년 이상 지난 책들이라 상품가치를 잃어버려 회수해온다 해도 폐기처분하거나 가뜩이나 비좁은 창고를 내줘야 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청산위는 올해 초 반품받은 책을 8차와 9차로 정리해 3월 15일까지 책을 회수해갈 것을 해당 출판사에 통보했다. 8차 대상출판사가 246개사, 9차 대상출판사가 624개사에 이른다. 홍대표는 “현재 3월 31일까지 자사 책을 회수해가도록 《한겨레》에 공고를 낸 상태다. 만약 기한 내에 책을 찾아가지 않으면 출판사가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해 임의 처리할 것이며, 앞으로 2~3회 정도 더 정리 작업을 추진해 6월 말까지 보문당 문제를 매듭지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보문당 사태에서 보듯 다시 문제는 전근대적인 유통관행이다. 실질적으로 유통을 담당하는 서점보다 출판사가 몇배 이상 많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 사태를 현장에서 지켜본 푸른숲 이동훈 영업부장은 “대부분의 출판사들이 자본력이 약해 어음에 의지하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전근대적인 위탁판매방식을 벗어나 현금결제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한다. 출판협동조합 김중수 회장도 “출판유통 현대화 문제는 관련단체들의 중지를 모아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새로운 원칙이 만들어지면 꼭 지켜나간다는 신념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박육순기자